

벅스킨은 수사슴 가죽의 표면을 기모한 것

벅스킨은 가죽의 표면을 기모한 것으로 벅스킨의 벅(buck)은 수사슴이라는 의미이다. 오리지널은 사슴의 가죽의 표면을 기모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표면을 기모한 것 모두를 말한다.

피혁(皮革)의 피(皮)는 동물로부터 벗긴 생가죽이라던가 이것을 건조한다던가 소금에 절이기도 하여 보존, 저장, 수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원피를 말한다. 혁(革)은 생가죽이라던가 원피에 방부가공을 하기도 하고 유연하게 하기도 하고 튼튼하게 하기도 한 것이다.

혁의 이용은 피의 표면을 살리는 것과 피의 이면을 이용하는 것 등의 2가지가 있다. 피의 표면을 은면이라고 한다. 은면이 있는 혁을 은면혁이라고 한다. 벅스킨은 사슴이나 양의 은면혁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기모시킨 것이다. 따라서 혁의 이면을 기모한 스웨드와는 다르다. 누벅(nubuck)은 어린 소(생후 6개월까지)의 은면혁의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버핑(buffing)하여 벅스킨과 같이 매끄럽게 기모시킨 것이다. 누벅(nubuck)의 누(nu)는 새로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벅스킨이라는 뜻이다. 어린 소의 혁은 어미 속의 피보다 얇고 부드럽고 신장이 좋아 매끄럽고 아름답다. 인장이나 인열에 대하여도 튼튼하여 이것을 이용한 누벅은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최고급품이다. 그런데 물방울이 떨어지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벅스킨(buck skin) : 무두질한 사슴가죽의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서 기모시킨 것.

현재는 우피, 양피 등의 가공품도 포함시킨다. 아름답고 감촉이 부드러우며 질겨서 코트, 바지, 모자 등과 구두, 백 종류를 만드는데 쓰인다. 사슴가죽으로 만든 것은 드물고, 무두질한 우피나 양피의 안쪽을 기모시킨 새미(chamois)나 우피의 표면을 가공해서 기모시킨 것을 사용하고 있다.